

#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 6차시.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

### <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항>

18세기 초, 저작권은 신성불가침이며 절대적 배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상기하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을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무척이나 많은 저작물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배려가 없이,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일일이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으러 다니는 것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권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권리자가 허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교육에 이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창달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세가지 저작권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를 위한 조항, 수업 시간에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항,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조항 등이 그것입니다.

### 1. 교과용 도서 목적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교과서 수록 저작물은 7900여명의 99000여건에 이릅니다(2008년 기준). 이 중 30% 정도의 저작물은 권리자 소재 파악도 안되고 있어 일일이 허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교과서에 게재하여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는 여러분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교과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학습참고서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교재 역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므로 대학 응용미술관계의 교재를 겸하는 저서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 제한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수업시간에는 많은 저작물을 활용합니다. 교수님께서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음악이나 영상물을 함께 보고 듣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보상금만 내면 이용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이버강의실을 운영하는 교수님도 많아지고 아예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 대학도 있지요. 위의 조문을 보시면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러닝에 대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2006년 일찍이 이러닝에 대비하여 ‘전송’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용주체도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포함됨을 명시하여(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쌍방향 교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2)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수업목적이라고 무제한한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조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컨대 수업시간에 문제집을 복사해서 나눠주면, 문제집은 안팔리겠지요. 이처럼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만든 책을 학교에서 수업목적이라고 복사해서 나눠주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구입하거나 빌려보게 되어있는 것을 복사하여 나눠주는 것은 금지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권리와 이용자가 만나 공정한 이용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왔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보세요.

## 미국 ‘서적 및 정기간행물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Agreement on Guideline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

허용 조건 적극적 요건	교사를 위한 1부 복제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교사가 직접 또는 요청하여 책의 한 장, 정기간행물의 하나의 논문, 편집물에 게재된 하나의 단편이나 시, 책에 게재된 하나의 차트, 만화 등을 복제할 수 있다.
	수업 과정을 위한 여러 부 복제	어떤 경우에도 학생당 1부를 넘어서는 안된다. 사소성, 자발성, 누적효과 기준의 충족
	사소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 단어 또는 2페이지를 넘지 않는 시의 경우: 전부</li> <li>· 250 단어 또는 2페이지를 넘는 시의 경우: 250 단어 이내</li> <li>· 2,500 단어를 넘지 않는 산문의 경우: 전부, 또는 1,000 단어 또는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초록</li> </ul>
	자발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는 교사의 의뢰로 그의 생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li> <li>· 그 저작물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때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용의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저작권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합리하여야 한다.</li> </ul>
	누적효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의 복제는 그러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학교에서 오직 한 과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li> <li>· 같은 저작자의 것은 단지 하나의 시, 논문 또는 두 개의 초록만이 가능하고, 하나의 편집물로부터는 세 개 이내의 것만이 가능하다.</li> <li>· 한 학기에 한 과정을 위해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홉 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ul>
소극적 요건	<p>(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복제가 불가)</p> <p>‘선집, 편집물, 집합저작물을 제작하거나 대체·교체하기 위한 복제’, ‘워크북이나 표준적인 시험지 또는 답안지처럼 공부나 수업 과정에서 소비되기 위한 저작물에서의 복제’, ‘도서나 출판자의 재판 또는 정기간행물의 구매를 대체하는 복제,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제, 같은 교사에 의해 매 학기마다 같은 자료의 반복적인 복제’.</p>	



## 일본 제35조 제1항 가이드라인

사 항	조 건	내 용
교육을 담임하는 자	수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	○ 상기 교육기관의 ‘수업’을 담임하는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원면허 등의 자격 유무는 묻지 않는다) ‘수업’을 담임하는 자의 지도하에 있는 것을 요한다 (교육기관 간에서의 교류시의 타고 재학생, 사회교육의 수업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연구수업 또는 참관수업에서의, 수업참관자는 제외
수업을 받는 자	수업을 실제로 받는 사람	
수업 과정에 있어서의 사용	‘수업’은 학습지도 요령, 대학설치기준 등에서 정의된 것	수업의 과정에 해당하는가는 왼쪽 조건에 비추어 수업을 담임하는 자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 ○ 교실에서의 수업, 종합학습, 특별교육활동인 학교행사(운동회 등), 세미나, 실험, 실습, 실기(원격 수업을 포함), 출석이나 단위취득이 필요한 클럽 활동 ○부(部)활동, 생도지도, 진로지도 등 학교 교육계획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과외지도 * 학교 교육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자주적 활동(예: 서클, 동호회, 연구회)의 경우는 ‘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하의 경우는 ‘수업의 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과 관련 없는 참고자료의 사용</li> <li>- 학내 LAN 서버에 축적</li> <li>- 학급통신 등예의 게재</li> <li>- 교과연구회에서 사용</li> <li>-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li> </ul>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필요부분	범위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으로 한다.
공표된 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공공에 제공, 제시된 저작물	* 미공개 논문, 작문, 편지, 일기, 미술, 사진, 음악 등의 저작물은 제외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대양 등을 고려	<p>*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p> <p>①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p> <p>a. 학생(초중고, 대학)들이 수업을 받을 때 구입하거나 빌려보게 되어있는 것(기록매체는 불문)을 구입하는 대신 복사하는 것</p> <p>예) 1-1 그 교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검정교과서(교사용 지도서 포함)</p> <p>예) 1-2 참고서, 문제집, 연습문제지(drill), 워크북(workbook), 자료집, 시험지, 백지도, 교재로 사용되는 악보</p> <p>예) 1-3 고등교육(대학 등) 교과서로 이용되는 도서(참고서, 연습서, 문제집 등을 포함)</p> <p>예) 1-4 독자 대상으로, 고등교육에서 학생을 포함하는 전문서적·잡지를 당해 교과와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것</p> <p>예) 1-5 라이선스 계약범위를 넘은 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용(잡지·서적 등의 부록 CD-ROM도 포함)</p> <p>예) 1-6 교재용 녹음물·녹음녹화물(음악용 CD, CD-ROM 등 디지털 매체의 음성을 수반하는 참고서, 보조교재, 교육기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여 반포되는 비디오)</p> <p>예) 1-7 렌탈용으로서 반포된 비디오, DVD</p>

		<p>b.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          예) 2-1 필요한 기간을 넘어 교실 내 또는 학교 내의 벽면 등에 게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 2-2 방송채널 등을 보관실 보존을 목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것</p> <p>② 복제 부수와 태양:          원칙적으로 부수는 통상 한 클래스의 인원과 담임하는 자의 합을 한도로 한다(초중고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이외의 경우, 한 교실의 인원수에 있어서 대체로 50명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p> <p>a. 많은 부수의 복제 등, 다수의 학습자에 의한 사용          예) 3-1 대학 등 대강의에서의 이용          예) 3-2 복수의 학급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량의 복제가 되는 경우(사회교육 등에서, 동일한 저작물을 반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예) 3-3 통신교육의 교재(제2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          예) 3-4 방송에 의한 수업의 교재</p> <p>b. 복제의 태양이 시판의 상품과 경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예) 4-1 복제하여 제본하는 등 시판 형태에 유사한 것          예) 4-2 감상용 미술, 사진의 복제</p> <p>c. 계속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          예) 5-1 수업마다 동일한 신문·잡지 등의 칼럼 연재 기사를 계속적으로 복제          예) 5-2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p>
--	--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저작자의 의도에 반하는 저작물 내용의 개변·편집 * 저작물에 기재된 저작권표시의 소거·개찬(改竄)
출처명시	관행의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복제물에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한다. 수업을 받는 자에 의한 복제는 수업을 담임하는 자가 출처명시를 지도한다. 출처명시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항목을 명시한다: - 서적: 도서명, 작품명, 저작자명, 출판사명, 발행연도 - 잡지·신문: 게재지명, 기사·논문명, 저작자명, 발행연월일 - 방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국명 - 음악(CD): 곡명, 작사·작곡가명, 실연자명, 레코드회사명 영화: 제목, 제작자명, 감독명, 실연자명

출처: 디지털교과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 \* 보상금 제도

교육을 위해 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저작자에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보상금 제도입니다. 예컨대 대학에서는 수업목적으로 교수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그리고 문화부장관이 정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3.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의 입학시험 등에서 문제 출제를 위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저작권법 제32조)

시험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비밀리에 작성될 것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이 곤란하며, 특히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험문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 저작권자의 통상적인 사용수익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